

맷돌의 체계

1. 단위와 맷돌의 역할, 관계

이 문제는 ‘맷돌은 단위연대체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겠죠.

제 판단엔 현재 맷돌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도 여성노동에 깊은 관심이나 소스가 풍부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활동으로 분출되면서 맷돌을 하게된건 아닌거 같아요. 이 말은 각 단위들이 여성노동에 대해 고민을 안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동인이랄까, 맷돌이 아닌 단위들과 비슷한 면도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전에 맷돌의 역할을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기회를 열어주는, 동을 뜨는 역할. 그건 맷돌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하면, 맷돌을 같이함으로써 여성노동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점.

어쩌면 이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거죠. 그리고 이런 역할은 단위 책임자로 맷돌회의에 나오는 사람들이 재주껏(?) 해야할 부분이구요. 하지만 현재 그것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죠. 그것이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모르는게 많고, 또한 단지 얘기함으로써가 아닌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소통이 되기 위해, 그리고 단위 간 소통이 단위 내 뿐만 아니라 맷돌 단위들끼리 집단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단위들과 함께 하는 정기적인 활동을 박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회를 잡는 것처럼, 사안과 활동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총회나 노동학교를 잡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총회를 박아놓고, 총회에서 얘기되는 것의 성격에 따라 노동학교형태가 나올 수도 있구요. 매달마다 얘기할 꺼리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정세라는 것도 있고 정기적인 판도 있고 하니 말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을 해봐도 4월 메이데이/ 5월 메이데이 평가와 이후 활동에 대한 모색/ 여름방학때는 여성연대 한판/ 9월 2학기 계획 등등..
그리고 정세적인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나 장기적인 여성노동관련한 주제를 잡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레드가 말했던 여름 현장활동(농활, 환활, 실천단..)에 대한 개입, 혹은 여성노동 세미나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학생회 선거를 맞아..., 사회단체와의 연대, 졸업 취업 시즌, 여성주의적 노동이란 대체 무엇인가? 등등 할 수 있고도 필요한 일은 얼마든지 널려있으니 말입니다.

좀 걱정되는건, 준비가 가능할 것인가는 둘째치고 과연 이런 총회나 노동학교라는 형식을 매달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번이라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그건 해봐야 알거같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맷돌에서 단위별로 논의할 수 있게 내용을 만들고 단위별로 싸악 얘기하고 그걸 수렴하는 형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암튼, 그런 부분은 유동적으로 남겨두고 일단은 정기적이고 장기적인(하하, 말장난같네요) 맷돌의 활동을 하나 잡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맷돌 내부의 긴장감을 위해서도 더더욱--;

그렇담, 그런 기제로 단위와 맷돌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가? 암만 한 달에 한 번 모인다고 해도 시간적 간격도 길고 아무래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걸리네요.

이것 또한 아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건 맷돌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각 단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할 것 같아요. 단위 내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듯. 간단히 말해서 표류처럼 세미나를 꾸리던가 여모의 경우 잘 안굴러가는(--;) 일터를 열심히 굴리고 살맛의 경우 #1의 활동이 계속 있어야겠지요.

2. 그럼 맷돌은 뭐 하고 단위는 뭐 해?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생각하기 쉬운 것부터 씁니다.)

맷돌

지난 회의때도 얘기된거지만, 웬만한 내용 논의나 사업 기획 등을 다 하게되겠죠. 물론 단위간 피드백이 잘 된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총회 준비하는 것처럼, 내용 준비나 글 분담 같이하고 검토하고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세미나도 하고, 딱히 내부에서 역할분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 회의 정리, 연락망 등은 돌아가면서 합시다.
선진 같은건 단위 별 역분을 하자고 했죠.

단위가 해야할 최소한은?
단위 내에서 여성노동관련 활동 내용은 뭐였으며 어떻게 했으며 평가는 어떠하며 등등.., 단위별 정세 분석,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글을 정기적으로 쓰는 것. 맷돌과 다른 단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이걸 맷돌 회의에 안오는 사람들이 주로 쓰게하자~~; 그리고 자료실에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훌륭한 소스가 될 듯.

그리고 사업별로 결합이 가능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관심은 있으나 개인들의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 자체가 광대할 때가 있으니. 예를 들어, 메이데이 기획단은 당연히 맷돌 말고도 여러사람이 같이 하겠지요. 그 밖에 어떤 주제나 사업이 대강 잡혔을 때 이런 의도로 이걸 할러는데 준비과정부터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결합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은근슬쩍 맷돌로?..)

> 개인 회원에 대한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개인 회원이 있는지 잘 파악이 안되서요. 만일 개인 회원이 있다고 했을 때, 가능한 건 맷돌회의를 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